

2023 제6회 세종건축문화제 대학생공모전 주제문

자연이라는 말은 서양의 말을 한문으로 번역한 nature의 의미부터 道法自然이라는 동양고전에서 유래한 의미까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자연스러운, 자연과학, 자연경관 등 우리는 이 자연이란 단어를 여러 말로 변용하여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사용합니다. 건축과 관련되어서, 자연이라는 단어는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발생적인 광의의 환경적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친환경건축, 생태건축, Passive 건축 등 자연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건축적 방법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구온난화, 환경오염의 문제 등 오늘날 환경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행복도시 세종 역시 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세계적 친환경도시가 되기 위해선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가 깨지고 오늘날의 환경위기가 도래한 이유는 자연의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연속성이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2023년 세종 건축문화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축이 자연의 질서와 흐름을 깨뜨리지 않고, 건축이라는 인위적 수단을 통해 자연과 어떻게 공존하려 노력하는 지를 보여주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공모전 역시 “세종, 자연과 건축을 잇다”라는 주제를 통해 친환경도시, 친환경 건축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자연환경과 공존하기 위해 계획된 모든 설계작품)가 담긴 작품이 제출되기를 기대합니다.